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3.60원 상승한 1192.30원에 마감

6일 환율은 전일대비 3.60원 상승한 1192.3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30원 하락한 1186.40원에 개장했다. 겹다운 출발한 환율은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화 강세가 재개되자 낙폭을 회수하고 11시경 상승 전환하였다. 달러화 강세와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급락한 영향으로 오후 내내 환율은 오름세를 보이며 1,192.90원까지 고점을 높인 뒤 소폭 하락하며 전일대비 3.60원 상승한 1192.3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66.46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86.40	1192.90	1186.40	1192.30	1190.0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65.55	1072.01	1063.26	1071.59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78.52	1381.62	1374.25	1377.69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3	1.08	2.04	4.38
결제환율(수입)	0.75	2.24	4.01	7.64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완화에...1,190원대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7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92.30원) 대비 1.75원 하락한 1,191.30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완화되며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증시는 장 초반부터 하락세로 개장하였으나 장중 미국 공화당이 부채한도를 오는 12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상승 전환했다. 이에 전일 급락한 국내 증시도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금일 환율에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며 14개월만에 최고치로 상승한 만큼 당국의 경계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월 네고물량 유입에 환율 하락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채한도 유예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며 달러화 강세를 보이는 점은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87.17 ~ 1195.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760.49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75원 ↓ ■ 美 다우지수 : 34416.99, +102.32p(+0.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6.4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509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